



12면

춤추는 천장들보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6월 2일 화요일 (윤 4월 11일) 제254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코로나 방역, 긴장의 끈 놓지 말라” “과수화상병 확산 막아라”

송하진 지사 '청정전북 지키기' 강력 대응 지시 도민 방역수칙 준수·위험시설 점검' 적극 홍보

송하진 도지사는 1일 코로나19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공무원들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는 현재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낮아졌지만, 쿠팡 물류센터,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또 전북은 코로나19로부터 청정지역이라는 애기를 듣고 있지만, 한 단계 더 강하게 대응한다는 자세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도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 이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지시했다.

아울러,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에어컨, 냉방용 가전제품 등을 사용 전에 철저하게 소독하고 위

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생에 대해 강조하고 도민들의 위생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송하진 지사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전복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도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로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고, 타시도 방문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가치와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대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송지사는 “그동안 우리는 자연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 등을 야기했으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고 생태문명, 문명의 생태화 등 생명사상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태문명은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문명, 사회 등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명과 생태문화에 대한 가치관을 본질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밝혔다.

/유호상기자

익산 사과과수원 도내 첫 발생...전북농기원, 대응체제 돌입

익산에서 전북 최초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가운데 농업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촌진흥청은 1일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했으며, 전북도는 타 시군 확산방지를 위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최근 5월 이후 기존 발생지역인 충주시를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월 31일 현재 새로 확인된 익산의 사과 과수원을 비롯해 총 87농장(48.7ha)에서 확진됐다고 1일 밝혔다. 전북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도 도내에서 처음으로 익산의 사과 과수원 1곳 3.6ha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되었음을 알리고 확산방지를 위한 농가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장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개 읍면 569개 농장 243ha를 대상으로 1차 조사한 결과 54개 농장에서 의심증상이 확인됐다. 따라서 오는 5일까지는 농가의 협조를 얻어 충주지역 전체 농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엔 처음 의심신고가 접수된 영주시와 인근지역인 문경, 예천, 봉화 등 경북의 사과 주산지 농장에 대해 5월 30일부터 인력 28명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타 시·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익산시 발생 과원에 대해 긴급방제명령을 시달리고 각 시·군에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사과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정기예찰을 앞당겨 실시하도록 했다. 익산시에는 과원의 출입을 제한하고, 인접된 시·군인 전주, 군산, 김제, 완주를 발생 우려 시·군으로 지정하는 등 권역별 대응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2일에 도내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과수화상병 예방·방제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유기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타 시·군으로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김윤상기자

수능 출제 '100% 또는 50%라도' '교수의 손'에서 '교사의 손'으로

김승환 교육감, 일반계고 교사 참여방안 재차 거론

수능 출제위원 구성방식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수능 출제위원에 일반계고 교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재차 거론했다.

김 교육감은 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완화될지, 악화될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현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능이 12월에 치러진다면 출제위원 구성이 중요한 문제다. 대학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위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수능이 연기되면서 출제위원들로 지명된 교수들이 하반기 개인일정 등을 이유로 참여가 어렵다고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게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일반계고 교사를 평강히 우수하다. 이



번 기회에 수능 출제 100% 또는 50%라도 현장 교사들이 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대학교수로 재직할 당시를 떠올리면서 “한법학자지만 다른 학교에서 문제를 내 달라고 하면 문제를 못 낸다. 그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수능 출제도 교수의 손에서 교사의 손으로 넘어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내년부턴 시행 예정인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분담비율 등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성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1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공무원들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생활속 거리두기

새로운 일상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